

# 잇단 원정 무승부 광주FC, 안방서 '승점 3' 노린다

### K리그1 15일 대구와 대결 '조지아 국대' 베카 새 전력에 정호연·이강현 등 활약 기대

### K리그2 전남 16일 경남 원정경기

강원과 제주를 이어진 강행군을 마치고 돌아온 광주FC가 안방에서 승리를 노린다. 광주는 15일 오후 8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대구FC를 상대로 K리그1 2023 23라운드 홈경기에서 나선다.

앞서 광주는 강원과 제주를 이어지는 장거리 원정에서 연달아 무승부를 기록했다. 강원과의 경기에서는 후반 46분 티모의 환상적인 골이 나왔지만 경기 종료 직전 한국영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제주 원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전 끝에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승리는 만들지 못했지만 상대의 거친 압박과 장거리 원정에도 패배 없이 승점 1점씩을 적립했다. 안방으로 돌아온 광주는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대구전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새 전력을 댄 공격진의 유기적인 움직임에 눈길이 쏠린다. 제주전에서 선발로 나선던 토마스, 허윤, 정지훈, 아사시가 날카로운 킥과 빠른 공격 전

개로 제주를 압박했다. 이번 여름 영입한 '조지아 국대 스트라이커' 베카가 제주를 상대로 데뷔전에 나서, 매서운 슈팅도 선보였다. 중원의 핵심인 이순민이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나서지 못하지만 정호연, 이강현, 박한빈이 건재하다. 이희균의 중원 투입도 문제 없다. '수문장' 김경민도 부상에서 회복해 그라운드도 돌아왔다. 김경민은 앞선 제주전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볼터리로 무실점 경기를 펼쳤다. 8승 6무 8패(승점 30)로 8위에 자리하고 있는 광주. 대구는 최근 3경기에서 1승 2무를 기록하는 등 8승 8무 6패(승점 32)로 5위에 올라있다. 세징야와 에드가 '최고의 외인 듀오'와 함께 홍철, 김진혁, 고재현, 이진용 등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전적에서는 광주가 9승 5무 8패로 대구에 앞선다. 홈에서 더 공격적인 광주가 두 경기 연속 무승부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홈팬들과 승리의 만세삼창을 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남드래곤즈도 뜨거운 화력으로 승리 사냥에 나선다. 전남은 16일 오후 8시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FC와 K리그2 21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A매치 휴식이 이후 전남은 1승 2무를 기록하고

있다. 앞선 두 경기에서 연속해서 무승부가 기록됐지만 연달아 3골을 기록하는 등 공격이 매섭다. 특히 앞선 충남아산FC와의 원정경기에서는 3골을 먼저 내줬지만 끝까지 가는 승부를 펼치면서 3-3 무승부를 이뤘다. 전남은 후반 21분 터진 노건우의 골을 시작으로 후반 42분 최성진의 도움과 발디비아의 발리 슈팅으로 추격의 고삐를 당겼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추상훈이 극적인 동점골을 장식하면서 값진 승점 1점을 쟁했다. 전남은 앞선 경기의 여운을 이어 경남으로 간다. 설기현 감독이 이끄는 경남은 쉽지 않은 상대다. 경남은 10승 6무 2패(승점 36점)의 전적으로 현재 K리그2 선두다. 클레이슨, 원기중, 모재현, 카스트로를 앞세운 경남은 36골을 만들면서, 승점이 같은 김천상무(31득점)를 득점으로 누르고 1위에 랭크됐다. 득점 1위 경남이지만 최근 득점 흐름은 앞선 라운드에서 8호골을 장식한 발디비아가 버티고 있는 전남이 앞선다. 또 고태원과 이후권이 부상에서 회복해 경남 원정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력의 호재도 있다. 전남이 물오른 공격으로 1위 경남을 상대로 승리를 누려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강원, 제주를 이어진 원정 강행군을 펼친 광주FC가 15일 홈으로 돌아와 대구FC를 상대로 K리그1 21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사진은 지난 19라운드 전북과의 홈경기에서 골을 넣고 기뻐하는 이건희(왼쪽)와 안영규. <광주FC 제공>



조코비치



알카라스

## 조코비치-알카라스 결승서 만날까

### 웬만한 4강 확정...알카라스 vs 메드베데프, 조코비치 vs 신네르

'신상' 카를로스 알카라스(1위·스페인)가 처음으로 웬만한 테니스대회(총상금 4470만 파운드·약 743억원) 남자 단식 준결승에 올랐다. 알카라스는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올림 글랜드클럽에서 열린 대회 10일째 남자 단식 8강전에서 2003년생 동갑내기 라이벌 헬게르 루네(6위·덴마크)를 3-0(7-6(7-3) 6-4 6-4)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알카라스는 선수 인생 최초로 웬만한 준결승에 올랐다. 이전 최고 성적은 지난해 대회에서 16강에 오른 것이다. 지난해 US오픈에서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한 알카라스는 올해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에는 부상으로 출전하지 않았고, 이어진 프랑스오픈에서는 4강에 올랐다. 메이저 두 대회 연속 4강에 오른 알카라스의 다음 상대는 2021년 US오픈 우승자인 다닐 메드베데프(3위·러시아)다. 메드베데프는 이날 크리스토퍼 윌랜드스(43위·미국)를 3-2(6-4 1-6 4-6 7-6(7-4) 6-1)로 물리치고 준결승에 올랐다. 알카라스와 메드베데프는 통산 상대 전적에서 1승 1패로 팽팽하다. 가장 최근 맞대결인 지난해 남자프로테니스(ATP) 마스터스 1000 인디언웰스 대회에서는 알카라스가 2-0(6-3 6-2)으로 승리했다. 이날로 남자 단식 4강 대진이 완성됐다.

대진표 반대편에서는 24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이자 8번째 웬만한 우승에 도전하는 노바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와 안니크 신네르(8위·이탈리아)가 대결한다. 세계 랭킹 1-3위가 이변을 허용하지 않고 4강에 안착했다. 8위 신네르는 4강에 오른 선수 중 유일하게 메이저 대회 우승 경험이 없는 선수다. 준결승에 오른 것 자체가 처음이다. 결승 무대에서 모든 테니스 팬이 고대하는 알카라스와 조코비치의 '세기의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프랑스오픈 준결승에서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맞대결을 벌였고, 알카라스가 근육 경련 증세를 보이면서 조코비치에게 허무하게 졌다. 알카라스는 이날 경기 뒤 '조코비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는 질문에 '솔직히 이길 수 있다. 모두가 조코비치를 우승 후보 1순위라고 생각하고 그건 명확하지만, 내가 우승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면서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나에게도 웬만한 우승을 차지할 역량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코비치는 전날 준결승 진출을 확정된 뒤 "선수들이 우승하고 싶고 이기고 싶어 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며 우승을 자신했다. /연합뉴스

## 조대여고 핸드볼 선수 3명, 아시아 정상 향한 선봉에

### 아시아 청소년 핸드볼선수권 15일 개막...무안고 최서연도 출전

조대여고 핸드볼 선수 3명이 한국 여자 청소년(17세 이하) 핸드볼 대표팀에 포함돼 아시아 정상에 도전한다. 한국 여자 청소년(17세 이하) 핸드볼 대표팀이 제 10회 아시아 여자 청소년 핸드볼 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해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도로 떠났다. 일선여고 이두규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 대표팀은 15일부터 24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서 4년 만의 우승에 도전한다. 한국은 2005년 열린 첫 대회부터 계속 우승을 차지해오다 지난해 열린 제9회 대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참하면서 연속 우승 기록이 멈췄다. 같은 이유로 아시아 여자 주니어(19세 이하) 선수권 연속 우승 행진을 멈췄던 한국 여자 주니어 대표팀은 지난 9일 홍콩에서 끝난 대회 결승에서 중국을 완파하고 4년 만에 정상 탈환에 성공한 바 있다. '언니들'과 동반 우승에 도전하는 청소년 대표팀은 여고부 강자로 꼽히는 일선여고 선수들이 가장 많이 차출됐다. 김지선(CB), 유희빈(PV), 김민지(RW), 김다인(GK) 등 총 4명의 일선여고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았다.

2023 협회장배 전국중고등선수권대회 여고부 준우승팀인 조대여고에서는 바다빈(LB), 임광선(RB), 김보현(LW)이 우승에 도전한다. 이정영 조대여고 코치도 대표팀 코치로 합류한다. 태극마크를 단 16명의 선수들은 9개국에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팀이 준결승 토너먼트를 벌이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한국은 A조에 속해 중국(16일), 카자흐스탄(19일), 네팔(20일)을 차례로 상대한다. 최종 4위 안에 들면 2024년에 개최될 제10회 세계 여자 청소년 핸드볼 선수권대회 출전권을 얻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한국 육상 400m 제주, 아시아선수권 38년만에 메달

### 사우디 제치고 동메달 획득

한국 육상 남자 400m 제주 대표팀이 38년 만에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했다. 이시문(22·한국체대), 고승환(26), 신민규(23·이상 국군체육부대), 박원진(20·속초시청)이 이어 달린 한국 계주팀은 12일 태극 방콕에서 열린 2023 아시아육상선수권 남자 400m 계주 결선에서 38초99로 3위에 올랐다. 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에서 메달을 따낸 건, 장재근(61) 진천선수촌장이 뱀바로 뛰었던 1985년 자카르타 대회 이후 무려 38년 만이다. 한국 남자 400m 계주팀은 1981년 도쿄, 1983년 쿠웨이트시티, 1985년 자카르타에서 3회 연속 동메달을 따낸 뒤, 오랫동안 시상대에 서지 못했다. 하지만, 2023년 태극 방콕에서 값진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이날 오전 예선에서 39초33으로 1조 2위, 전체 4위로 결선에 진출한 한국은 결선에서 기록을 더 단축해 3위를 차지했다.



12일(현지시간) 태극 방콕에서 열린 2023 아시아육상선수권 남자 400m 계주 결선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 /연합뉴스

결선에서는 100m 10초09·200m 20초19의 기록을 보유한 2006년생 '태극 불트' 푸리폴 본손이 앵커(마지막 주자)로 뛴 태국이 38초55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중국은 38초87로 2위에 올랐다. 한국은 38초99로, 39초12의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3위를 했다.

남자 400m 계주 아시아 최강 일본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경기 뒤 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은 "38초대 기록에 진입하며 동메달을 획득한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며 "9월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기록(38초74) 경신과 메달 획득에 도전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2관	엘리멘탈
3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4관	엘리멘탈, 악마들
5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종갓집, 파이아하트
6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귀공자
9관	여름날 우리, 슬기로운 아내 수업
7관 싸씨커플	범죄도시3, 인디애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귀공자, 극장판 피노키오 위대한 모험
8관 싸씨커플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스피리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귀공자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4회 정기연주회  
평화를 향한 역동과 진혼  
일시 : 2023-07-25(화)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403

기획공연 포커스 장하은 콘서트 'Once Again'  
일시 : 2023-07-18(화)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3